

# 여성 근로 현황 및 성역할 인식

## -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2019150409 김세진

2020.12.13

## 1. 탐구 동기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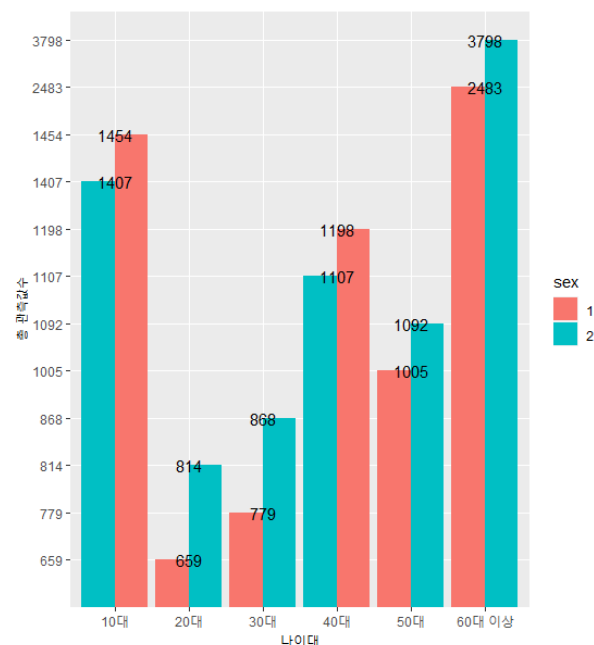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여자 대학생이지만 미래에 결혼이나 출산의 이유로 일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 이에 실제로 여성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소득이 높은지,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여성들이 많은지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고 싶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 국민 16664명(6723가구)을 대상으로 성별, 경제활동참여상태, 월 평균 임금, 성역할에 대한 인식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016년 발간)를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나이대별로 여성의 직업 유무 및 소득을 남성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이후에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직업을 그만둔 이유를 성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근로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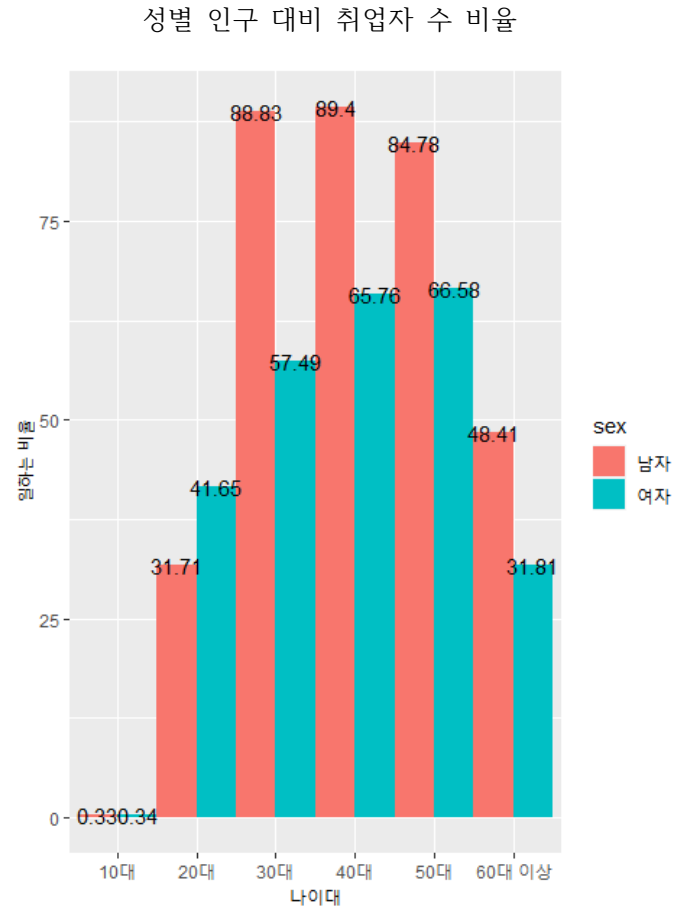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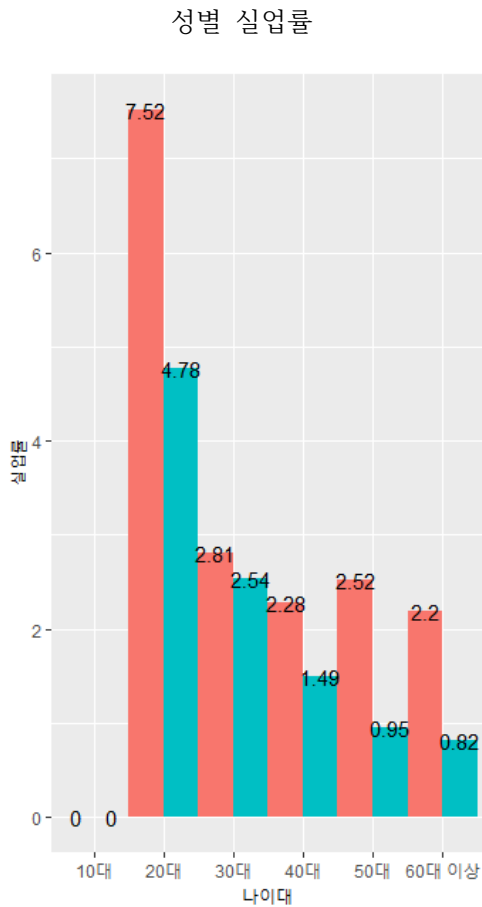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전체 조사 결과를 연령대와 성별로 나누어 나타낸 아래 표<sup>1</sup>를 통해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한다. 남녀 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sup>2</sup>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의 피조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sup>1</sup> sex에서 1은 남성, 2는 여성을 지칭한다.

<sup>2</sup> 각 연령대에서 성별 관측값 수 비가 1.5를 넘지 않는다.

## 2.1 성별 실업률 및 취업자 수 비율



좌측 그래프는 나이대를 기준으로, 성별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은 (실업자<sup>3</sup>/경제활동가능인구<sup>4</sup>)×100으로 계산하였다. 우측 그래프는 나이대를 기준으로, 성별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출산 후에 복귀하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는 여성 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30대에서 50대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남성의 실업률이 전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실업률의 수치 자체도 30대에서 2.54%(13명), 40대에서 1.49%(11명), 50대에서 0.95%(7명) 등 낮은 것으로 보여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실업자가 되는 일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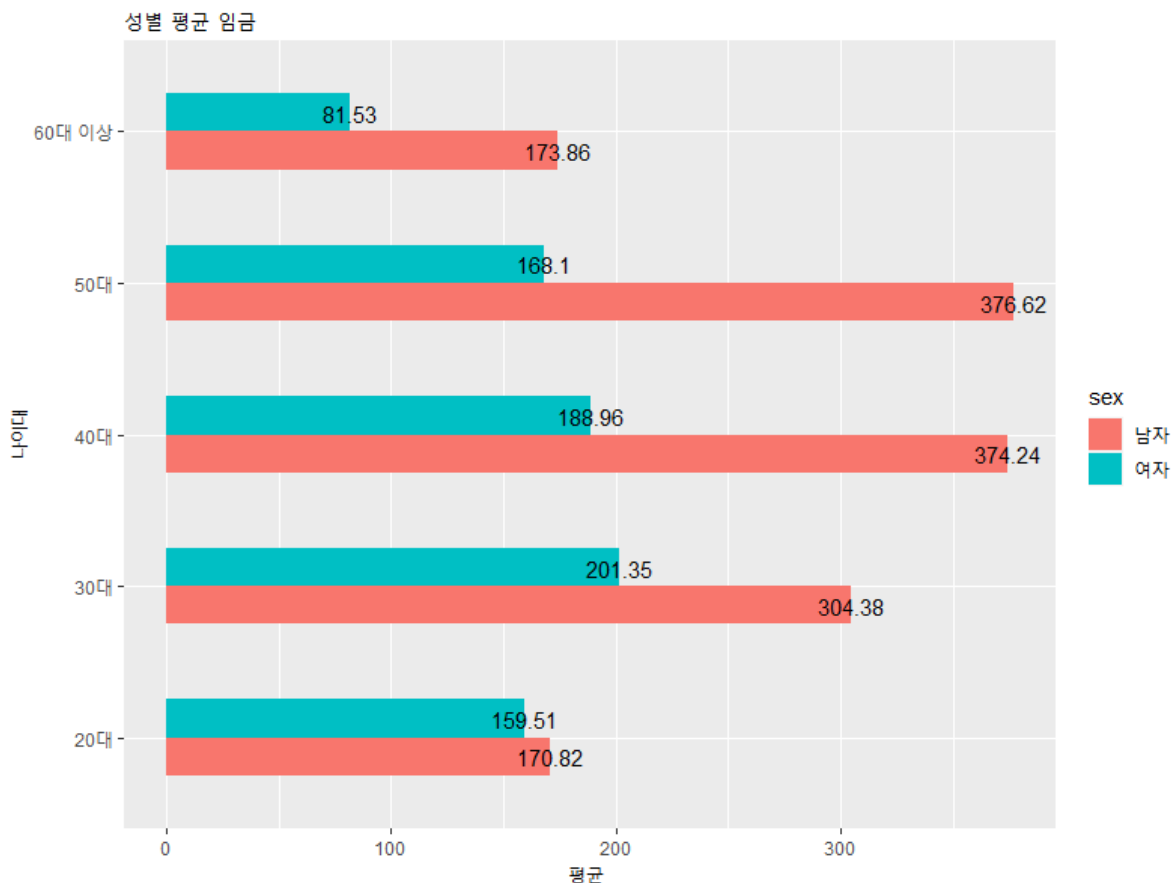
그러나 취업한 인구 비율 또한 20대를 제외하고 남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은 30대에서 50대까지 거의 90프로에 가까운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지만, 여성은 대체로 55프로

<sup>3</sup> 조사일 기준으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자

<sup>4</sup>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에서 65프로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률과의 차이가 있는 것은 노동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여성 중에 더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주변에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반 정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정도 비슷하게 수치가 나온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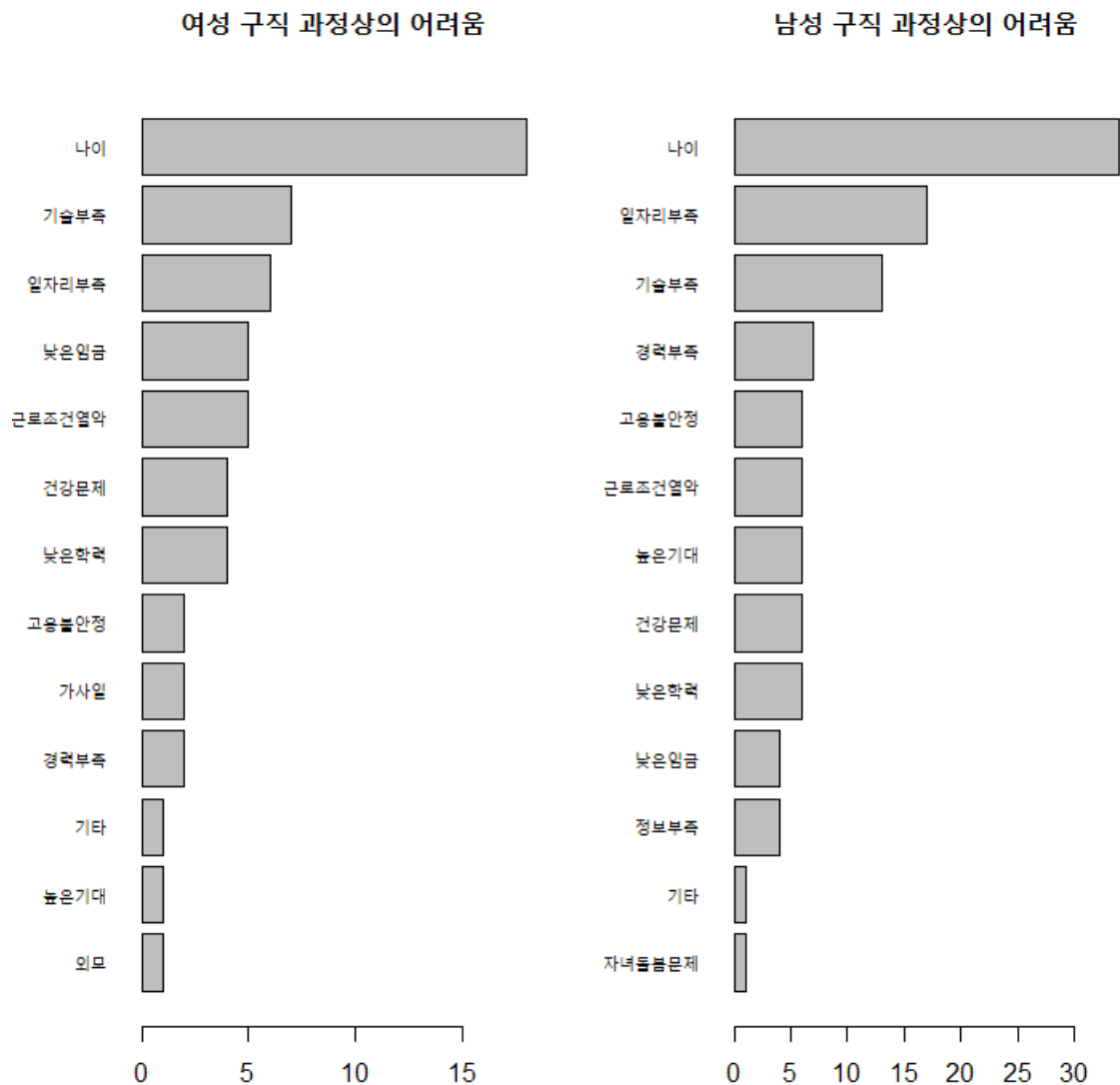
## 2.2 연령대, 성별 월평균 소득 비교



그래프를 통해서 전연령대에서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 격차는 30대 이후로 급격하게 벌어진다. 30대에서 100만원 정도, 40대에는 190만원, 50대에는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 2.3 성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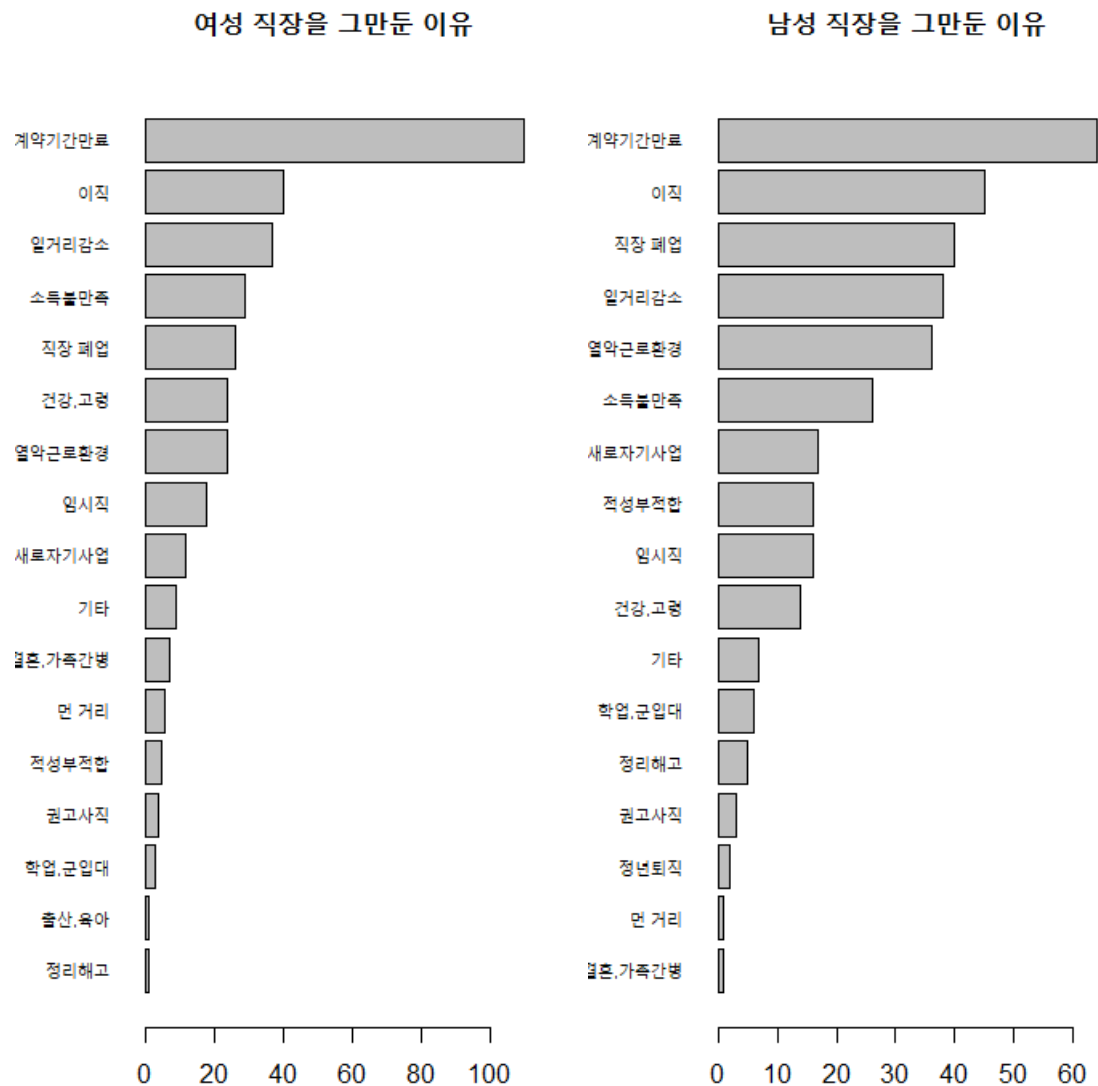
피조사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선택지는 총 18개로, 아래 표에 제시된 것 이외에 '성차별 때문에, 신용불량자라서, 가족의 반대로'라는 선택지가 존재했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두 표를 비교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구직 과정에서 나이로 인해 어려움을 압도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술 부족 및 일자리 부족 역시 공통적으로 상위에 드는 변수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사일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답변이 여성에서만 나오고 남성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3명 정도가 선택한 항목으로 상위 항목은 아닌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다. 또한,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 여성 중에 자녀돌봄문제나 성차별, 가족의 반대의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 2.4 성별 일자리를 그만둔 구체적 이유 비교

이번 문항은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묻는 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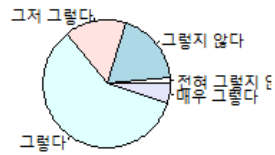
직장을 그만 둔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공통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그리고 이직이 1,2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항목이나 ‘결혼,가족간병’의 항목의 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출산,육아’의 경우 극소수가 선택하였으며 ‘결혼,가족간병’ 역시 11위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데에 출산이나 육아, 결혼이 상위 사유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남성의 경우 ‘출산, 육아’ 항목은 아예 선택되지 않았으며 ‘결혼,가족간병’은 극소수가 선택한 것으로 보아 그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출산, 육아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2.5 성별 여성 근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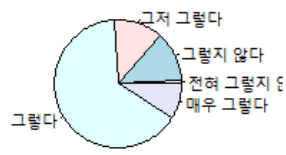
질문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답을 세로로 제시하였다.

연한 파스텔톤이 여성, 진한 무지개색이 남성의 인식을 나타낸 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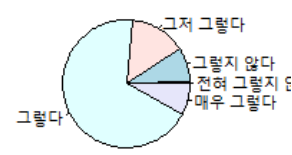
여성 전일제 근로 가족의 일상생활 힘들어짐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근로 아동에게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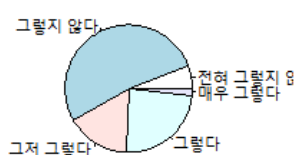


전업주부의 일은 돈을 버는 일만큼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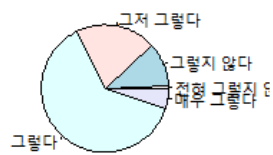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업주부의 일 이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답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시나 여성 전일제 근로가 가족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한다거나,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근로가 미취학 아동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남녀 모두 생각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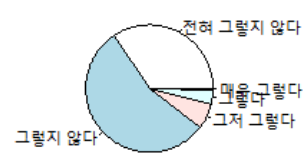
남성임무 돈 버는것 여성임무 가정 돌보는 것



남성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직장에서 일 집중 힘들



나머지 문항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의견을 보인다. 남성의 임무는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남녀 모두 ‘그렇지 않다’는 답이 과반수였고,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과반수였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으

로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지 않다는 답이 과반수였다. 여성의 경우에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 3. 맺음말 및 토의

인터넷 상에서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기에 여러모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본 결과, 생각보다 여성의 실업률이 낮고, 출산이나 육아, 결혼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성차별이나 육아, 가사의 이유가 구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 또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전일제 근무가 가족의 일상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거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직장을 그만 둘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성의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으며, 꽤 많은 여성들이 원한다면 출산, 육아를 하고도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직종이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연령대, 성별로만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상도 등 지방에 사는 사람 중에 가부장적인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본 연구를 진행해보면 소문이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추후에 직종이나 지역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 직종에 따라 여성 근로에 대한 인식이 다른지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다.



## <부록>

#데이터 불러오기

```
install.packages("foreign")
library(foreign)
library(dplyr)
library(ggplot2)
library(readxl)
library(stringr)
```

#데이터 확인

```
raw_welfare<-read.spss(file.choose(),to.data.frame=T)
welfare<-raw_welfare
View(welfare)
str(welfare)
```

#변수 이름 지정

```
welfare<-rename(welfare,
                sex=h10_g3, #성별
                birth=h10_g4, #태어난 연도
                status=h10_eco4, #경제활동참여상태
                income=p1002_8aq1, #일한 달 월 평균 임금
                difficulty=p1002_8aq3, #구직 과정에서 어려운 점
                quit=p1002_3) #직업을 그만둔 이유
```

#나이대별 관측값 수

```
age<-2016-welfare$birth
welfare<-welfare%>%mutate(ageg=ifelse(age<20,"10대",ifelse(age<30,"20대",ifelse(age<40,"30대",ifelse(age<50,"40대",ifelse(age<60,"50대","60대 이상")))))) #나이대별 변수 추가
table(welfare$ageg)
welfare$sex=factor(welfare$sex,levels=c(1,2),labels=c("남자","여자")) #성별 남자, 여자로 바꾸기
ageg_n<-welfare%>%filter(!is.na(sex))%>%group_by(ageg,sex)%>%summarise(n=n())
ageg_n
ggplot(ageg_n,aes(x=factor(ageg),y=factor(n),fill=factor(sex)))+geom_bar(stat="identity",position="dodge",colors=c("gray","black"))+labs(x="나이대",y="총관측값수",fill="sex")+geom_text(aes(label=n), color="black")
```

#나이대별 실업률 및 인구수 대비 일하는 비율

```
ageg_work<-
welfare%>%filter(!is.na(status))%>%group_by(ageg,sex)%>%summarise(unemployment=(length(which(
status==8))/length(which(status%in%c(1:8))))*100) #실업률

ggplot(ageg_work,aes(x=factor(ageg),y=unemployment,fill=factor(sex)))+geom_bar(stat="identity",position="dodge",width=1)+labs(title="성별 실업률",x="나이대",y="실업률(%)",fill="sex")+
geom_text(aes(label=round(unemployment,2)),color="black",position=position_dodge(1))

ageg_work2<-
welfare%>%filter(!is.na(status))%>%group_by(ageg,sex)%>%summarise(work.rate=(length(which(status%in%1:7))/length(which(status%in%1:9)))*100) #인구수 대비 일하는 비율

ggplot(ageg_work2,aes(x=factor(ageg),y=work.rate,fill=factor(sex)))+geom_bar(stat="identity",position="dodge",width=1)+labs(title="성별 취업자 수 비율", x="나이대", y="일하는 비율",fill="sex")+geom_text(aes(label=round(work.rate,2)),color="black",position=position_dodge(1))
```

#나이대별 여성 소득, 남성 소득 평균

```
ageg_income<-
welfare%>%filter(!is.na(income))%>%group_by(ageg,sex)%>%summarise(mean_income=mean(income))

ggplot(ageg_income,aes(y=factor(ageg),x=mean_income,fill=sex))+geom_bar(stat="identity",position="dodge",width=0.5)+labs(title="성별 평균 임금",y="나이대",x="평균",fill="sex")+geom_text(aes(label=round(mean_income,2)),position=position_dodge(0.5))
```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순위 비교

```
difficulty_w<-welfare%>%filter(sex==2)%>%select(difficulty) #여성

tab.w<-table(difficulty_w)

rownames(tab.w)<-c("나이","외모","낮은 학력","기술 부족","경력 부족","건강문제","높은 기대","가사 일","일자리부족","근로조건열악","낮은임금","고용불안정","기타")

barplot(sort(tab.w),horiz=T,las=1,cex.names=0.65,main="여성 구직 과정상의 어려움")
```

```
difficulty_m<-welfare%>%filter(sex==1)%>%select(difficulty) #남성

tab.m<-table(difficulty_m)

rownames(tab.m)<-c("나이","낮은학력","기술부족","경력부족","건강문제","높은기대","자녀돌봄문제","일자리부족","정보부족","근로조건열악","낮은임금","고용불안정","기타")

barplot(sort(tab.m),horiz=T,las=1,cex.names=0.65,main="남성 구직 과정상의 어려움")
```

#일자리를 그만둔 구체적 이유

```
quit_w<-welfare%>%filter(sex==2)%>%select(quit) #여성

quit_tab_w<-table(quit_w)
```

```
rownames(quit_tab_w)<-c("직장 폐업","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소득불만족","일거리감소",
"임시직","적성부적합","열악근로환경","새로자기사업","결혼,가족간병","건강,고령","먼 거리","학업,
군입대","이직","출산,육아","기타")
```

```
barplot(sort(quit_tab_w),horiz=T,las=1,cex.names=0.65,main="여성 직장을 그만둔 이유")
```

```
quit_m<-welfare%>%filter(sex==1)%>%select(quit) #남성
```

```
quit_tab_m<-table(quit_m)
```

```
rownames(quit_tab_m)<-c("직장 폐업","정리해고","권고사직","정년퇴직","계약기간만료","소득불만족",
"일거리감소","임시직","적성부적합","열악근로환경","새로자기사업","결혼,가족간병","건강,고령","먼
거리","학업,군입대","이직","기타")
```

```
barplot(sort(quit_tab_m),horiz=T,las=1,cex.names=0.65,main="남성 직장을 그만둔 이유")
```

```
#성별 여성 근로에 대한 인식
```

```
percep<-function(gender,question){
```

```
  func<-welfare%>%filter(sex==gender)%>%select(question)
```

```
  func_tab<-table(func)
```

```
  rownames(func_tab)<-c("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그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

```
  func_tab
```

```
}
```

```
pief<-function(percep,name){
```

```
  pie(percep,radius=1,main=name)
```

```
}
```

```
par(mfrow=c(2,3))
```

```
pief(percep("1","p1004_3aq1"),"여성 전일제 근로 가족의 일상생활 힘들어짐")
```

```
pief(percep("1","p1004_3aq2"),"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근로 아동에게 악영향")
```

```
pief(percep("1","p1004_3aq3"),"전업주부의 일은 돈을 버는 일만큼 중요")
```

```
pief(percep("1","p1004_3aq4"),"남성임무 돈 버는것 여성임무 가정 돌보는 것")
```

```
pief(percep("1","p1004_3aq5"),"남성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

```
pief(percep("1","p1004_3aq8"),"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직장에서 일 집중 힘들")
```

```
pief2<-function(percep,name){
```

```
  pie(percep,radius=1,col=rainbow(length(percep)),main=name)
```

```

}

pief2(percep("2","p1004_3aq1"),"여성 전일제 근로 가족의 일상생활 힘들어짐")

pief2(percep("2","p1004_3aq2"),"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근로 아동에게 악영향")

pief2(percep("2","p1004_3aq3"),"전업주부의 일은 돈을 버는 일만큼 중요")

pief2(percep("2","p1004_3aq4"),"남성임무 돈 버는것 여성임무 가정 돌보는 것")

pief2(percep("2","p1004_3aq5"),"남성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pief2(percep("2","p1004_3aq8"),"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직장에서 일 집중 힘들")

#percep("1","p1004_3aq8") 문제 발생
func.w<-welfare%>%filter(sex==1)%>%select(p1004_3aq8)

table(func.w) #변수가 9인 이상치 발견해서 없애줘야 함
tab.func.w<-table(func.w)[1:5]

rownames(tab.func.w)<-c("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그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pie(tab.func.w,radius=1,main="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직장에서 일 집중 힘들")

#percep("2","p1004_3aq4") 문제 발생
func.m<-welfare%>%filter(sex==2)%>%select(p1004_3aq4)

table(func.m) #변수가 9인 이상치 발견해서 없애줘야 함
tab.func.m<-table(func.m)[1:5]

rownames(tab.func.m)<-c("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그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pie(tab.func.m,radius=1,col=rainbow(length(tab.func.m)),main="남성임무 돈 버는것 여성임무 가정 돌보는 것")

```